

동해안-신가평 송전망 구축 착수 수도권 전력수급 불안 해소 기대

LS전선, 세계 최대용량 HVDC 동해안-수도권 프로젝트 1단계

해당구간 지중 케이블 위주 설계
송전선로 확충 어려운지역 효율적

LG전선 주도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대 용량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이 본격화됐다.

LS전선은 세계 최초 상용화된 500kV 90℃(고온형) HVDC 케이블을 적용해 한국전력의 '동해안-신가평' 송전망 구축 공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해안-신가평' 구간은 동해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동해안-수도권' 프로젝트 1단계로, 수도권 전력 수급불안 해소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번 구간은 지중(地中) 케이블 위주로 설계돼 기존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500kV 90℃ HVDC 케이블은 기존 70℃ 제품 대비 도체 허용 온도를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는 고사양 제품이다.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LS전선은 지난 6월



LS전선 직원이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인 500kV급 HVDC 케이블이 투입되는 동해안-신가평 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LS전선

한국전력 사전적격심사(PQ)를 통과하며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았다.

LS전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 및 지중 HVDC 케이블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진도, 제주-완도 해저 구간, 그리고 수도권 핵심 전력망인 북당진-고덕 지중 HVDC 등 국내 모든 HVD C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HVDC 기술은 교류(HVAC)에 비해 송전 손실이 적고 계통 안정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장거리 전력 송전이 중요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단지·국경 간 전력망·대도시 지중 송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8000억원에서 2030년 약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린 '동해안-신가평' 구간 착공식에는 LS전선 김형원 에너지/시공사사업본부장, 한국전력 김호기 HVDC건설본부장, 김동규 신송전건설실장 등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사업본부장은 "HVDC 사업은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용화 경험이 핵심이다"라며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동해안·수도권 2단계, 유럽 테네트(TenneT) 프로젝트 등 국내외 주요 사업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中, 8.6세대 FMM에 2000억… IT OLED 시장구도 바뀌나

中 내년 양산목표 낭보에 신규라인
'일본산+중국산' 투트랙 구축뎀
韓-中 공급망격차 확대 가능성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IT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8.6세대 정밀급속마스크(FMM) 국산화와 투자 확대가 초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대형 IT OLED 라인 증설 흐름 속에서 FMM 내재화에 성공할 경우 한·중간 국제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FMM 업체 환차이싱(매직스타)는 최근 8.6세대

OLED용 FMM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약 10억위안(한화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신규 라인은 중국 닝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며 양산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기존 6세대 중심이던 중국 내 FMM 시장이 대형 IT 패널 수요 확대에 맞춰 8.6세대급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8.6세대 FMM은 일본 다이닛 폰프린팅(DNP)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대형 IT OLED 패널 생산에 필요한 초박막 정밀 패턴 구현과 열 변형 억제 기술이 한계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FMM 투자를 확대하는 배경에도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공급 구조 속에서 대형 IT OLED 라인 증설에 따른 조

달 다변화와 초기 수출 안정화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BOE는 청두 지역 8.6세대 IT OLED 사업에 약 630억위안(약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CSOT 역시 약 300억위안(약 6조2000억원)을 들여 8.6세대 OLED 라인을 구축하는 등 설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FMM 공급망을 자국 내에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8.6세대 IT OLED용 FMM 조달은 일본 의존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준 기자

태광산업,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 철회

“정부 정책 기초·주주가치 보호”

태광산업이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는 지속할 방침이다.

태광산업은 24일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초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주가가 급락하고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 점도 철회 이유로 들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최근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 조선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선 근본적인 사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고, 신사업 진출과 사업구조 재편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며 “협약 약화에 대비해 3.5개월 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정부 정책지원에 ‘승승장구’ 서산 ‘감태’, 대만·中 수출길

소진공 ‘혁신성장촉진자금’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자라는 ‘감태’는 양식이 불가능한 100% 자연산 해조류다.

김의 사촌격인 감태는 특유의 씹싸름한 맛과 향으로 ‘바다의 약초’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가공하는 기업 입장에서선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매년 1월에서 5월 사이 단 5개월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장사를 하기위해선 이 시기에 1년치 원물을 모두 확보해야만 한다.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서산에서 감태를 가공·유통하고 있는 기린컴퍼니에게 지난 5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대규모 원물 매입이 시급했지만 자금 여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감태 가공 ‘기린컴퍼니’ 자금지원
대만 수출, 中에 국내 첫 감태공장

중기부 ‘강한소상공인’ 최우수상
독일 식품박람회 혁신제품 선정
2년새 90%↑연매출 25억 기대

눈앞에 좋은 원물을 두고도 방법이 없던 그때 소진공의 정책자금이 ‘골든타임’을 지켜줬다. 지난 5월 말 기린컴퍼니는 소진공의 ‘혁신성장촉진자금’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도약을 지원하는 이 자금으로 회사는 질 좋은 감태를 약 5000kg을 매입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곧 안정적인 생산라인 가동과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원물 확보에 성공하면서 잠재력도 폭발했다. 기린컴퍼니는 대만에서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해 약 4000만 원을 수출했고, 국내 최초로 중국에 감태 공장도 등록했다.

성과에 대해 세간의 평가도 후했다. 기린컴퍼니는 대전·세종·충남 지역경제발전 유공으로 지난 9월 ‘한빛대상’



기린컴퍼니가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나는 감태로 만든 ‘감태 수연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독일 ‘아누가(ANUGA)’에서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을 수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강한소상공인’ 로컬유형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브랜드로도 자리매김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독일 ‘아누가(ANUGA)’에선 ‘감태수연면’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한국의 토종 식재료 감태가 까다로운 유럽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6000만원의 혁신성장촉진자금이 불려온 ‘나비효과’였다.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한 것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었다.

지난 2023년 당시 13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둔 기린컴퍼니는 올해엔 약 25억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2년 사이에 90% 넘게 성장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기린컴퍼니의 도약을 이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혁신형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이다. 소진공은 2년 연속 매출이 신장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레이터로 선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견인하고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서산 감태 기업 사례는 소상공인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성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에코플랜트, ‘콘테크 미트업 데이’ 시상

(취세프라텍 등 6곳 수상기업 선정)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2025 콘테크 미트업 데이(ConTech Meet-Up Day)’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콘테크 미트업 데이’는 SK에코플랜트가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공모전이다. 지난 2020년 첫 시행 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총 120건의 기술이 접수됐다. SK에코플랜트는 접수 기술들에 대한 서류 심사 및 1·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 평가를 거쳐 반도체 2건, AI 3건, 에너지 1건 등 총 6건을 최종 수상

기술로 선정했다. 평가 시 기술 혁신성, 사업성, 공동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최종 수상기술 및 기업은 ▲반도체 초순수 공정 탈기막 제조 기술(반도체 분야, (주)세프라텍) ▲반도체패수슬러지 활용 친환경 건설재료 제조 설루션(반도체 분야, (주)H&W) ▲회전력 활용 고효율 탄소 포집 및 컴팩트 설비 구축 기술(에너지 분야, (주)본밸류) ▲AI 및 로봇 활용 현장 자재 운반 설루션(AI 분야, 고레로보틱스(주)) ▲AI 기반 도면분석 검토 및 자동 설계 설루션(AI 분야, (주)투피트), ▲중대재해 예방 특화 AI 설루션(AI 분야, (주)미스틸)이다. 특히 (주)미스틸과 (주)세프라텍은 우수 수상기업으로 선정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원관희 기자 wkh@